

• 동아리톡톡 •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보드랑과 함께

보드게임(board game)은 놀이판과 간단한 물리적인 도구로 진행하는 놀이를 말한다. 사하구에는 보드게임을 유용하게 즐기는 동아리 보드랑이 있다.

동아리 회장 황하얀(38세·하단동)씨는 결혼하기 전 유아용교구 가방 수업을 듣고 보드게임의 매력에 빠져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결혼을 하고 부터는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과 아이돌봄교실,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보드게임수업을 나갔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드게임을 널리 알리고 싶어 동아리를 만들었다. 사하구 맘카페를 통해 가입한 회원과 작은도서관에서 사고력 보드게임 리틀브레인 수업을 이수한 회원들로 모두 7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 달에 한번 정기모임을 하며, 새로운 보드게임을 소개하고 게임방법을 배우고 공유한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외 행사에도 참가한다. 작년에는 북구에서 주관하는 보드랑수업 콘텐츠와 사하구의 두근두근 체험단, 평생학습 성과공유회에도 참가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잠시 문을 닫았지만 하단2동 행정복지센터의 '보드랑'에도 자원봉사를 나가고 있다. 황하얀 씨는 "보드게임은 아이들의

포 정지은(38세·하단동)씨는 어릴 때부터 보드게임을 좋아해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다. 운 가족이 함께 집에서 즐길 수 있어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더 돈독해진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활동이 제한을 받아보니 보드게임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보드게임이 우리 생활에 시너지 효과가 큰 놀이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사하구의 보드랑은 7월 6일에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황하얀 씨는 보드랑에서 강의도 할 계획이다. 보드게임의 교육적 효과를 널리 알리고 싶다면 주민들이 보드랑에 자주 방문해 주기를 희망했다.

천종숙 평생학습구민기자 tagore0308@hanmail.net

인기 유튜버가 되고 싶다

평생학습 홍보단 '유튜브 영상제작기' 수업

내가 찍은 유튜브를 많은 사람들에게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 평생학습 홍보단의 '유튜브 영상제작기' 수업이 행복한 상상을 실현시킬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사하구는 평생학습 홍보를 위해 주민참여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 영상에는 평생학습관의 여러 프로그램 소개, 평생학습 수업 1~2분 맛보기, 동아리 활동, 지역축제 등의 다양한 주제가 담길 예정이다.

수업은 5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12회에 걸쳐서 제2청사의 평생학습관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인기있는 유튜버가 되기 위해 영상편집, 컨텐츠 기획, 촬영장비 사용법, 유튜브 채널관리, 라이브 방송 방법 등을 배울 예정이다. 이번 강좌에는 연령제한을 두고 시작했지만 다양한 계층의 문이 많았다.

권명훈(동주대 교수) 강사는 유튜브 역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이 사람들이 영상을 공유하고 소통을 하는 장소이며, YouTube는 You(너, 우리) Tube(텔레비전)의 합성어로 나와 너, 우리가 나오는 영상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은 요리와 비슷하다고 한다. 레시피는 기획의 단계, 재료준비는 촬영을 하는 단계, 조리



2020 인문학 아카데미

일시
2020. 6. 25.(목)
저녁 7시 ~ 9시
장소
사하구청 본관4층
대강당

강 신 주 (철학자, 작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찾는 진정한 행복이란

생활 속 거리두기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입장인원 제한(250명)

김미연 평생학습구민기자
01hanthis@naver.com

사하구 쓰담학교 초등 검정고시반 모집



사하구는 검정고시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모 선정에 따라 '2020년 사하구 쓰담학교 초등학력 검정고시 대비반'을 개설한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저학력 학습자에게 학력취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구민의 자아실현을 돋구어 운영한다. 검정고시 대비반은 6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4시까지 운영되고, 장소는 평생학습관 제4강의실이다. 모집인원은 사하구민 20명이고,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재도 제공한다. 올해 2회 검정고시 공고일 전까지 운영예정이나 변동될 수 있다. 모집인원 미달 시 개강 후에도 접수 가능하고, 강의 과목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6개 과목 학습과 기출문제풀이이다. 배움의 기회를 놓쳤거나 초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한 주민은 평생교육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 사하구 평생교육과 220-4805

이경녀 평생학습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사하구평생교육신문

사하배움마당

VOL.25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구
사하배움마당은 사하구 평생학습 구민기가 만드는
평생학습 소식지입니다.

발행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전화 : 220-4801~6 팩스 : 220-4809 발행일 : 2020. 06 . 20.

"마스크가 불편해도 배울 수 있어 행복"

코로나 이후 달라진 사하구 평생학습 현장



뚝딱뚝딱 목공교실

"제2청사 소품 우리손으로 제작"

코로나19로 닫혔던 사하구 평생학습 교실들이 5월 말부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있다.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방역 당국의 지침 덕분이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채 긴장 속 수업을 하고 있는 배움의 현장을 찾아보았다. 석 달여 만에 열린 교실은 그동안의 공백을 보충하려는 듯 평생학습의 열기로 뜨거웠다.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강조되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필수였다. 청사 출입구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손세정제를 사용하고 나서야 강의실에 입장할 수 있었다.

대기 인원까지 있을 만큼 인기강좌로 부상한 '배우고 나누는 뚝딱뚝딱 목공교실'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다. 강의실은 학습자 간의 거리를 최소 1m로 유지하며 1인 1책상으로 배치하였다. 수강생들은 오랜 만에 강의실을 찾았다면 그동안의 답답함을 토로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염려도 감추지 않았다. 박문숙 씨는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 지퍼 백에 넣은 후 실내용 마스크로 바꿔 쓰는 신중함도 보였다. 천현미 강사는 수업에 앞서 목공과가 협업하는 과정이 많아 특히 서로 조심하며 배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드릴 수업은 마스크,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최소

2인 1조로 진행하고 4인, 6인으로 조를 짜야하는 우드버닝크레이과 정은 형편에 따라 다른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전 과정에서 몸이 좋지 않거나 열이 난다면 미리 연락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수강생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뚝딱뚝딱 목공교실은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수·목요일 10회로 진행된다. 첫날부터 약 20명의 다양 한 남녀노소 수강생들은 질의문답이 오가는 열띤 수업을 했다. 박미진 (37세·다대1동) 씨는 평소 목공 예에 관심이 많았는데 재료비만으로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만족해했다.

이 강좌는 목재에 대한 지식과 기구를 고르는 요령 등 이론과 소품에서 가구에 이르는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액자, 작은 책상과 미니의자 등 소품이 제2청사에 전시될 예정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장식소품이 기대된다.

이미성 평생학습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외국인 한국어자격증교실

"한국말 익혀 강사 되고 싶어요"

"다음 대사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답은 몇 번 입니까?"

"2번! 2번입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어지는 강사의 물음에 대답하는 수강생들의 목소리는 열성으로 가득하다.

사하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II)을 준비하기 위한 한글 교실을 개설하였다. '근사한 TOPIK 교실'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근로자 사이를 잇는 한국어 자격증 강좌를 뜻한다고 한다. 재작년부터 매년 1회씩 열리는 이번 한글교실에는 중국, 베트남, 네팔 등에서 온 21명의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여성들이 참여하였다.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으로 행복학습 매니저의 도움

을 받아 열 체크와 손 소독 그리고 기록을 하고 자리에 앉았다.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듣는 모습이 색다르게 보였지만, 강사의 지도에 잘 따르고 강의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열정을 느꼈다.

베트남에서 온 강예린(귀화·32세·당리동) 수강생은 "한국에 온 지 10년 되었는데 베트남어와 문화를 강의하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고 다가오는 한국어능력시험 6급에 도전하고 싶어요. 마스크를 쓰고 공부해도 배울 수 있어 행복해요"라며 밝게 웃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면 강좌는 다가오는 한국어능력시험(8/23, 10/18, 11/15 일 연 3회)에 응시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 취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물론이고 예비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사회와 직장에 대한 조기 적응을 위해 기업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실은 5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13회에 걸쳐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4시 신평1동 동매누리 행복센터 2층 강의실에서 열린다. 중도에도 참여 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이고 교재도 지원한다.

문의: 사하구 평생교육과 220-4806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핵심수칙 5가지!!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거리 두기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웃소매
-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박강균 평생학습구민기자
alberto1@hanmail.net

행복한 학습공간
동네방네학습관

공간기부 보람에 흥보는 덤

사하구 학습공간 25곳 이용하세요

사하구는 현재 지역 내 카페나 학원, 공방 등 공간을 활용해 배움을 나누는 동네방네학습관 25곳을 운영하고 있다.

동네방네학습관으로 장소를 제공한 시설은 사회 참여는 물론 흥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용자는 집이나 직장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장점 덕분에 사하구 동네방네학습관 이용자와 제공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사하배움마당〉은 최근 평생학습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는 동네방네학습관을 6회에 걸쳐 소개한다.

같은 관심사로 공부를 하고 싶거나 동아리 모임을 하고 싶은데 장소가 필요하다면 사하구 동네방네 학습관으로 새롭게 지정되었다. 공간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당리동의 아이비즈 학원은 2017년 사하구의 제 1호 학습관으로 등록하여 지금까지 여전히 학습자들에게 인기다. 평지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학원으로 운영하는 곳이라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가 잘 갖춰져 있어 동네방네 학습관으로 이용하기에 손색이 없다.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나 학습이 전면 중단되었지만 작년 연말까지 대관이 있었다. 그동

요리학원', 다대동 '스마일 빌건강센터', '다대도서관' 등이 동네방네 학습관으로 새롭게 지정 되었다. 공간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당리동의 아이비즈 학원은 2017년 사하구의 제 1호 학습관으로 등록하여 지금까지 여전히 학습자들에게 인기다. 평지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학원으로 운영하는 곳이라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가 잘 갖춰져 있어 동네방네 학습관으로 이용하기에 손색이 없다.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나 학습이 전면 중단되었지만 작년 연말까지 대관이 있었다. 그동

안 꾸준히 성인 영어스터디 모임이 있었고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는 단기 프로그램과 역사 수업도 있었다. "저 비는 시간에 장소만 빌려주는 건데요.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빌려드려야죠. 귀찮지 않아요" 라며 김종길(53세·당리동) 원장은 겸손해 하였다. 처음 동네방네 학습관으로 선정된 기관이나 사업장은 공간공유를 통하여 홍보도 할 수 있고 사회 참여와 공간 기부라는 의미 있는 일을 실천할 수 있다. 이용자는 정치나 종교 그리고 개인의 영업을 위한 모임을 제외한 학습 장소나 모임, 배달강좌 또는 회의장 소로 동네방네 학습관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간을 빌려 쓰는 것인 만큼 깨끗하게 뒷정리를 하고 나오는 매너가 필요하다.

해주는 것 같다.

공간기부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평생교육과 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방

문접수하면 된다. 담당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이나 접근성, 기자재 등을 확인한 후 최종 선정한다. 동네방네 학습관으로 선정된 기관이나 사업장은 공간공유를 통하여 홍보도 할 수 있고 사회 참여와 공간 기부라는 의미 있는 일을 실천할 수 있다.

이용자는 정치나 종교 그리고 개인의 영업을 위한 모임을 제외한 학습

장소나 모임, 배달강좌 또는 회의장 소로 동네방네 학습관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간을 빌려 쓰는 것인 만큼 깨끗하게 뒷정리를 하고 나오는 매너가 필요하다.

작년까지 이용하던 작은도서관과 대포포 해변공원 관리센터는

학습관에서 이용하기에 손색이

없다.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나 학습이 전면 중단되었지만

작년 연말까지 대관이 있었다. 그동

문의 : 사하구 평생교육과 220-4806

김정숙 평생학습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사하자연학교
신규코스 개발

사하자연학교가 올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을숙도와 아미산 자연학교 코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하자연학교 코스개발은 2013년 물운대, 2015년 승화산 자연학교에 이어 5년만이다.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배출된 주민 협설사인 생태고우니 14명은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사하구민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낙동강 하구 유역의 을숙도와 다대동 아미산의 이곳저곳을 누볐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하자연학교가 운영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신규 코스를 개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사하자연학교의 질도 높아지고 신규 학습자 유입과 생태고우니들의 역량강화도 기대된다.

올 상반기 사하자연학교는 지난 5월 23일 물운대를 시작으로 7월 11일까지 화요일은 기관, 토요일은 가족단위로 승화산과 물운대에서 진행이 된다. 신청은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www.saha.go.kr/edu 에서 하면 된다.

문의 : 사하구 평생학습관 220-4117

김수현 평생학습 구민기자
16mmstory@naver.com

향기 나는 책 숲을 거닐다

리모델링 후 개관한 사하도서관 탐방

사하도서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관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하도서관을 찾았다. 지난 5월 22일 재개관한 사하도서관은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도서대출만 하다가 2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며 이용자수를 줄여 개방했다. 과정동 꽈대기에 있는 사하도서관에 들어서니 먼저 '사하도서관 리모델링 완공 개관'이라고 쓴 현수막이 반겼다. 본관 출입구에는 마스크를 한 직원이 발열체크를 도와주고 연락처를 남기도 록 했다.

1층은 전 층이 어린이실이었는데 어린이 자료실과 유아실, 수유실 등을 갖추고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를 배려한 마음이 느껴졌다. 동근 서가를 비롯하여 의자, 탁자 등이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다. 서가의 높이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배치되어 있었다. 집 모양의 의자에 앉아 독서에 한창이던 황보연(괴정초교6) 어린이는 "전에는 어린이실이 위쪽에 있고 좁아서 불편했는데 지금은 아래로 내려와서 편해요. 넓고 예쁘고 책도 많아서 참 좋아요"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본관 지하에는 50석을 갖춘 문화홀과 휴카페, 북카페가 있다. 문화홀에



2층은 종합자료실이다. 연속간행물존과 디지털존도 있었다. 띠엄 띠엄 자리에 앉아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서가는 길게 원형으로 구성되어 마치 숲을 산책하듯이 책 사이를 산책하는 기분이 들었다. 서가의 끝쯤 도착하니 커피향이 났다. 연결된 별관 건물 북카페에서 나는 냄새였다. 북카페는 사하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운영하는데 커피와 간단한 식사를 팔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또 북카페 옆에는 30석 규모의 평생학습실도 있는데 도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었다.

본관 지하에는 50석을 갖춘 문화홀과 휴카페, 북카페가 있다. 문화홀에

문의 : 사하도서관 203-0571

최진 평생학습구민기자
jini3259@hanmail.net

김민정 평생학습 구민기자
arm5013s@naver.com

• 아름다운 그대 •

야학의 빛 밝히는 반딧불

형설모두학교 봉사활동 김종연 강사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한글 기초반을 맡아 가르쳤는데 초등학생이 학교에 가는 분위기로 출석률이 아주 좋았다. 현재는 검정고시반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다. 검정고시반은 대부분 형설모두학교 졸업생이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졸업장이 없어서 서러웠거나 필요에 의해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한다.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시험 때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 예민해지기 쉽다.

직장에서 퇴근하면 급하게 달려가는 곳은 집이 아닌 괴정동에 위치한 형설모두학교이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하구 어르신들을 위해 젊음을 회생하는 김종연(28세·부민동) 강사다. 깔끔한 인상과 겸손함이 묻어나는 그는 봉사활동을 날들이 하는 것으로만 여겼는데 2017년 대학교 다니면서 졸업 준비로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시작한 것이 어르신들과 만남이 되었다.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라는 문구를 보고 형설모두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대학생이 되어 학교로 찾아왔는데 자리를 비웠을 때라 만나지 못했다. 학생은 가르치다 보면 항상 눈에 밝히는 분이 있다. 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제 갈길을 가지고 떨어져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다. "선생님이 안 오시면 나도 공부 안 할겁니다"라는 말에 이분까지만 합격시켜드리자고 한 것이 계속 머물게 되었다.

2018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형설모두학교에 대해 인터뷰를 하

고, 지난해에는 사하구청에서 주관하는 '어르신 자서전 쓰기 사업'에

청년 멘토로 활동하였다. 굿네이버스에서는 어려운 아이들 대상으로 해운대와 광안리바닷가에서 홍보마

케팅을 하였다. 또한 올해는 유튜브를 통해 어르신과 청년이 조를 짜서 코인 노래방, 카페 가기 등을 체험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해양대학교 공과대학 경영학과 졸업 후 주위에서는 이 정도 나오신 분이 왜 전공을 살리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기도 한다. 평소에 낫을 좀 가리는 편이지만 자랄 때 할머니와 같이 생활을 해서 그런지 어르신이 편하고 일이 재미있다. 열심히 활동하는 동료 선생님들이 좋은 분들이라서 깊은 우정이 되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주거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남을 돋기 위해서 젊음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그는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는 야학의 반딧불 같은 존재이다.

김필분 평생학습구민기자
shjpbun@naver.com

평생학습자 미니 인터뷰 제2청사에 가보니

"쾌적한 환경 기대 커요"



사하구 평생학습관이 사하구 제2청사 5층으로 이전하여 상반기 개관과 함께 학습장을 이용하는 학습자들의 의견, 바라는 점 등을 들어봤다.

◇ 김세영(49세·장립2동) 노인인 지활동 책놀이 지도사 수업을 수강한다. 얼마 전 장립으로 이사했는데 평생학습관 이용 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바로 올 수 있어 편리하다고 했다. 제2청사로 이전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좋고 의견이 편해서 3시간의 수업에도 집중이 잘되는 것 같다고 했다.

◇ 박제영(52세·하단1동) 지난번 학습관은 조용했지만 어두웠고 이번 학습관은 창이 커서 밝은 것이 좋다고 한다. 도서관이 있어 수업을 듣고 책을 바로 빌려갈 수 있어 편리하다고 했다. 옆 공사장의 소음으로 수업에 방해가 되어 소음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 안은정(41세·다대동) 밝은 공

경우 많았다. 그래서 시민 모니터링 단을 1개 강좌 당 2번씩 파견시켜서 강좌를 관리한다. 이것이 배달강좌의 질이 유지되는 비결이다.

배달강좌를 신청할 모임과 단체는 오산시 교육포털에서 배우고 싶은 강좌나 강사를 검색해서 신청하면 된다. 기초과정과 심화과정도 가능하다. 5명 이상의 오산 시민과 오산 소재 직장인으로 구성된 학습팀(6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3명 이상 가족공동체(6세 이상, 오산 시민)가 신청해도 된다. 배달강좌에 선정이 되면 다음 달 학습자가 원하는 강좌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배달해 준다.

사하구에서도 배달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사하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두 번 신청을 받으며 성인 7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하구도 요건을 완화해서 배달강좌가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고명옥 평생학습 구민기자
arm5013s@naver.com